

동화로 듣는 우리나라의 효 이야기



① 효성 깊은 호랑이

활동유형	동화	활동수준	공통수준
활동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래동화를 듣고 ‘효’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이해한다. 전래동화를 듣고 극놀이를 표현해본다. 		
교육과정 관련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생활영역-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-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. 언어생활영역-문학 작품 즐겨 듣기-다양한 문학 작품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. 		
활동자료 (CD에 수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화 그림 자료  활동지 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호랑이 할머니 나무꾼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멧돼지 도끼 사슴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/div>		

활동내용 및 방법

- ▶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내용의 동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읽어본 동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.
 -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래동화로 많이 전해지고 있어.
 - 내가 읽어 본 전래동화 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내용의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니?
 - 오늘은 전래동화 중에서 ‘효성 깊은 호랑이’라는 동화를 들어보도록 하자.
- ▶ ‘효성 깊은 호랑이’ 동화 내용을 들려준다.
- ▶ ‘효성 깊은 호랑이’ 동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.

- 호랑이는 왜 산돼지를 잡아서 집 마당에 놓았니?
-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니?
- 왜 동화 제목을 ‘효성 깊은 호랑이’라고 이름을 지었을까?
- 우리 친구들은 호랑이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니?
- 우리 친구들이 만약 호랑이라면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?
- 우리 친구들이 ‘효성 깊은 호랑이’처럼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?

<p>활동평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화 내용을 이해하는가? ■ 호랑이가 어머니께 했던 행동을 의미를 아는가?
<p>확장활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화내용을 동극으로 표현하여 본다. ■ ‘내가 호랑이라면?’ 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동화 속 호랑이라면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여 표현한다.
<p>동화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효성 깊은 호랑이 <p>옛날 아주 먼 옛날 꽤 많은 나무꾼과 어느 착한 호랑이가 살았어요. 숲에서 나무꾼이 한참 나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.</p> <p>호랑이 : 어흥.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.</p> <p>나무꾼은 너무나 무서워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. 그때 마침 좋은 껍이가 떠올랐어요.</p> <p>나무꾼 : 어이구, 형님!</p> <p>하고 나무꾼이 넙죽 엎드렸어요.</p> <p>호랑이 : 아니, 내가 어째서 너의 형이란 말이나?</p> <p>나무꾼은 두려움에 땀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시작했어요.</p> <p>나무꾼 : 형님,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? 산으로 나무하러 가신 형님이 호랑이로 변해 사람이었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셨다고요.</p> <p>호랑이 : 뭐라고?</p> <p>나무꾼 : 어머님께서는 밤낮으로 형님을 기다리며 슬퍼하시고 계세요. 정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?</p>

나무꾼이 어찌나 슬피 울며 말하는지 호랑이는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.

호랑이 : 내가 사람이었다고?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셨다니…….

호랑이도 어느새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어요.

나무꾼 : 형님, 어서 어머니께 감시다.

호랑이 : 아니다. 이런 모습을 어찌 어머니께 보이겠느냐. 네가 어머니를 잘 보살피려라.

나무꾼 : 예, 형님 뭇까지 효도를 다하겠습니다.

목숨을 건진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.

다음날 아침, 집 마당에 죽은 멧돼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?

어머니 : 이런 고마운 호랑이를 봤나.

그 날 이후로 한 달에 두 세 번씩 나무꾼 마당에는 멧돼지, 사슴, 토끼 등의 짐승이 놓여졌어요.

그러던 어느 날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. 그 후로 호랑이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어머니의 무덤에 있는 비쩍 마른 호랑이를 보게 되었어요.

나무꾼 : 형님!

굶주림으로 기절해 있던 호랑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.

호랑이 : 아, 아우인가…….

나무꾼 : 형님,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

호랑이 :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 무슨 기쁨으로 살겠느냐.

힘겹게 몇 마디를 한 호랑이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. 그렇지만 호랑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. 나무꾼은 어머니의 무덤 옆에 호랑이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평생 그 무덤을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.